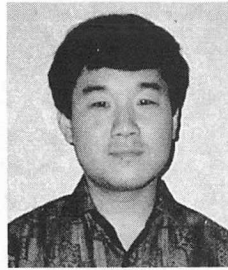


'90 세계양돈박람회를 돌아보고



신 경 호

(<주>미원 사료사업본부 지역12과장)

지난 6월 2일부터 4일까지 미국 아이오와주 데모인에서 세계양돈 박람회(World Pork Expo)가 열렸다. 필자는 이 박람회를 참관하고 축산관련기관을 견학하기 위하여 미국을 다녀왔기에, 양돈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고 느낀 바를 적어보고자 한다.

1. 세계 속의 한국을 실감

외국 여행은 으레 다소의 긴장감을 느끼게 마련이지만, 그러한 긴장감은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사라지고 말았다. 외국 항공사 소속 비행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승무원과 우리말 안내방송은 그러한 긴장감을 느낄 여유조차 주지 않았던 것이다. 더구나 맨 처음 도착한

포틀랜드 공항에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들은 말은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하는 분명한 우리말이었는데, 정말 내가 미국 땅에 온 것인가 의심이 갈 지경이었다.

여행기간 내내 계속해서 느낀 것이지만, 영어를 못해도 별 불편없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울러 우리의 국력이 그만큼 신장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었으며, 세계가 좁아진다는 말도 실감할 수 있었다.

아무튼 우리 일행(우리 일행은 모두 29명이었다)이 포틀랜드와 덴버를 거쳐 데모인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10시경이었다. 서울에서 오후 6시반이 지나서 출발하여 10여시간을 날아왔는데도 시간은 겨우 3시간반 정도가 지난 셈이니, 지구가 돌긴 도는구나 생각하고 속으로 웃었다.

2. 박람회장에서의 하루

미국에서의 첫 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 우리 일행은 박람회장으로 향했다.

박람회장을 가는 동안 느낀 한 가지는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를 넓구나 하는 것 뿐이었다. 어느 곳 하나 거칠 것 없이 펼쳐진 지평선이 무엇보다도 부러웠다. 그 모든 땅을 전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으나, 버려진 땅은 없어 보였다. 사용하지 않는 땅은 잔디라도 심어 가꾸어 놓아 마음이 저절로 확 트이는 것 같았다. 땅에 굽주려 온(?) 우리는 자연 그 넓은 대지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어 알아보니 평균 수준의 농사를 지으려면 30만 평 정도의 토지가 필요하며, 땅 값은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엄청나게



▲ World Pork Expo를 참관하러 온 양돈업자들

짜지만 세금이 워낙 많아 유티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부동산 투기도 없다고 하였다.

이윽고 우리가 탄 버스가 박람회장에 도착하였다. 박람회장도 넓기는 마찬가지여서 입구에서 전시장까지 전동 버스가 별도로 운행되고 있었다.

등록을 마친 다음, 맨 먼저 시설이 전시되어 있는 곳으로 갔다. 그곳에는 각국에서 각양각색의 시설 및 기자재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분만틀, 바닥재, 사료배합기, 급이기, 케이지, 환풍시설, 단열재 등이었다. 대개가 국내에서도 볼 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나름대로 조금씩 개량되어 비슷비슷 하면서도 각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출품하여 조금도 손색

이 없는 제품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지 않은 것이 못내 아쉬웠다.

다음으로 간 곳은 실내 전시장이었다. 그곳에는 사료, 영양제, 약품, 도구,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전시하고 있었으며 몇몇 대학에서는 양돈 전문교육 과정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가는 곳마다 각종 자료를 배부해주었다. 일일이 받다 보니 한 짐이 되었지만, 하루 종일 들고 다니느라고 애를 먹었다.

다음으로 간 곳은 종돈이 전시되어 있는 곳으로 엄청나게 많은 종돈들이 출품되어 그 자리에서 경매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좋은 돼지가 많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에 내 놓아 손색이 없을 돼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감탄을 자아낸 것은 돼지를 다루는 방법이었다. 조심조심 하면서도 뜻하는대로 몰고 가는 것이 마치 어머니가 자식 다루듯 하였다. 돼지 모는 채찍 등도 전시되어 있었는데, 가급적 돼지에 스트레스가 가지 않고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었다.

그 밖에 돼지고기를 소재로 한 요리강습도 열리고 있었으며, 한편에서는 눈요기 거리로 돼지 경주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 두 곳 모두 대단한 인기가 있었다.

또한 관람객들을 위하여 돼지고기 바베큐를 직접 만들어 점심을 제공하였는데, 맛도 맛있지만 바베큐 굽는 규모 또한 장관이었다. 바베큐를 굽는 곳이 70m나 되었다.

3. 짝잡한 사업 종돈장

박람회 관람을 마친 다음 날 우리는 아이오와 주립대학 부설인 종돈능력검정소를 방문하였다. 이곳 설명으로는 미국 내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큰 능력검정소라고 하였지만, 시설이나 관리면에서는 정말 보잘 것이 없었다. 우리와는 여러가지 면에서 환경이 다른 탓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만큼 발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다음으로 간 곳은 SGI종돈장이었다. 이 곳은 돼지 정액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였는데, 세계 각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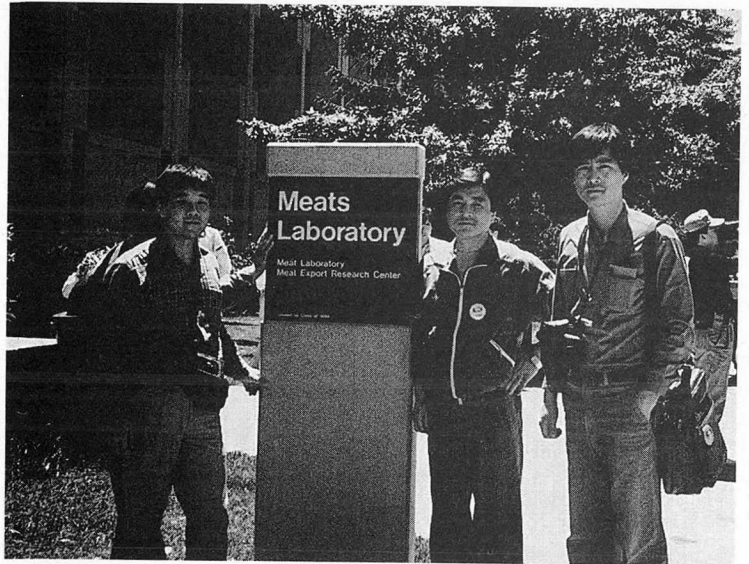
로 수출되고 있다고 자랑이 대단하였다. 규모나 시설면에서는 과연 잘 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보유하고 있는 종돈이 20두 정도에 불과하고, 그것도 특별히 좋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이것 설명으로도 자체에서 따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일반 경매를 통하여 구입한 것이라고 했다.

종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종돈 그 자체인데, 이런 정도의 종돈으로 세계적 수준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못할 바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1회 사정으로 10회용 정액을 만든다니, 이런 짝잡한 사업은 없을 듯 보였다.

4. 진출이 아쉬운 곡물시장

데모민을 출발한 우리는 시카고를 향했다. 시카고는 미국 3대 도시의 하나로 각종 산업이 다양하게 발전되어 있으며, 축산업에도 깊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

시카고에는 세계적인 곡물시장과 가축시장이 있다. 이곳에서는 각종 곡물의 선물거래가 신용으로 이루어지는데, 거래하는 모습은 증권거래소와 흡사하였다. 곡물시장의 경우 세계 각국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선물거



▲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육가공연구소에서 일행과 기념촬영 (사진 왼쪽이 필자)

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용이라는 데, 아직 그 정도 신용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견학을 왔다고 우리 말 안내방송을 해 주고, 한국어 팸플릿을 줄 때는 다소의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다.

5. 생산에서 가공으로

이번 여행에서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곳은 도축장과 슈퍼마켓이었다.

원래 시카고에는 대규모 도축장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도시화에 밀려 전국 각지로 분산되어 버렸으나 소규모 도축장들은 지금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나라와 특히 비교가 되는 것은 도축 내용으로 부위별, 등급별 두축이 철저히 실시된다는 것과, 가공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부위별·등급별로 가격차가 많은 것은 5배 가까이 나기 때문에, 고가 부위는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하지만 값싼 부위는 소세지·햄·베이컨 등으로 가공되며, 도축장 나름대로 신제품을 계속 개발하여 한 도축장에서만 수백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품들은 거의 쓸모없이 버려지는 비계에 붙어 있는 살, 꼬리까지 이용되어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성 향상은 키우는대서 끝나지만, 도축·가공과정까지 생산성을 연장시킨다면 아직도 수익을 높일 부분이 많이



▲ World Pork Expo 관람자들의 가장 많은 흥미를 유발시킨 돼지경주 장면

남아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부위별·등급별 도축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도축시설이며, 아울러 생산자가 도축 및 가공에까지 진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축장에 이어 슈퍼마켓에 가 보고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도축장에서 만든 가공품이 완제품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슈퍼마켓에서는 그러한 가공품을 식탁에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썰고 양념하고 조리하여 재포장까지 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상품이 되어 있었다. 식육 또한 적당하게

포장하여 냉장 보관·판매하고 있었다. 고기를 냉동시키면 품질이 떨어진다 하여 이 곳에서는 냉장을 원칙으로 한다고 한다. 일단 냉동을 시키면 가격이 30%나 떨어진다고 한다.

우리가 생산에만 열을 올리고 그 뒤에는 가격 올라가기만 바라는 반면, 이 곳에서는 가공에서 부가가치를 올리고, 각종 제품을 개발하여 소비까지 촉진시킴으로써 저절로 수익이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받아들여야 할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 수입개방의 물결은 계속 거세 밀려오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그저 앉아서 남만 원망하고 처분만 바라고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경쟁력을 키우고 자구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로 눈을 돌려 배울 것은 배우고, 좋은 것은 무기화 하여 수입개방을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6. 여행을 마치고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나름대로 여행 성과를 정리하여 보았다. 가장 보람있었던 것은 역시 양돈 및 축산전반에 관한 전세계적인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아울러 세계 속의 우리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안목을 키워 온 것도 큰 성과로 생각된다.

다른 측면으로는 미국인들의 생활상과 교포들의 활동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현재의 미국이 있기까지는 그만한 노력이 있었음을 실감하였으며, 그 속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겨루며 살아가는 교포들을 보며 국내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우리나라의 밝은 장래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